



수산물 안전정보시스템 구축

- 수산물 안전정보 등 소비자에게 인터넷으로 실시간 제공 -

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수산물안전정보 시스템을 구축했다.

이 시스템은 정부 부처간 안전정보를 공유해 식품안전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, 국민들에게 수산물 안전정책·위해정보·원산지표시단속 등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됐다.

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시작해 2회에 걸쳐 구축한 이 시스템은 앞으로 3차 사업까지 확대될 예정이다.

※ 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

1차 사업으로 구축된 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(www.fsis.go.kr)은 정부 부처간 안전정보 공유를 위해 정보공동활용시스템, 수산물 안전성조사·표시단속관리시스템 및 소비자 정보제공을 위한 안전정보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.

정부 부처간 정보공동활용시스템은 안전성 기준 설정 등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각종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과 해수부의 수산물안전성조사결과·원산지표시단속 및 농림부의 농산물안전성조사결과·농약 등록현황 등 안전 관련 정보를 정부 부처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.

수산물안전성조사와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시스템은 조사결과 및 처리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실시간 공유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.

또한 소비자에게 수산물 안전정책정보와 수산물을 안전하게 소비하는 방법 등 안전과 관련된 필요 정보를 매월 전자 매거진 형태로 다양하게 제공하게 된다.

2차 사업으로 구축된 수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(www.fishtrace.go.kr)은 생산에서 소비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산물 위생안전과 품질관리에 대한 이력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.

이 시스템은 우리수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알리고, 특히 원산지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산 수산물과 차별화가 가능하도록 했다.

또한 영어와 일어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외국에서도 우리 수출수산물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우리 수산물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.

해수부 관계자는 “금년 말에 구축될 수산물방역관리시스템이 완료되면 명실 공히 수산물의 위생안전 관리 종합시스템으로 완성돼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생산어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폭 넓게 이용하는 종합 포털로서 역할이 기대된다”고 말했다.

문의 : 수산정책국 품질위생팀 팀장 김상규, 사무관 김종실 Tel 02-3674-6921 / Fax 02-3674-6919